이용주·정인화, 호남 기반 '대안신당' 서 왜 빠졌나

평화당 탈당파 중 이탈…3지대 통합 조건 내세워

이용주(여수갑) · 정인화 의원(광양 · 곡성 · 구례)

대안정치연대가 창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창당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용주(여수갑) · 정인화 의원(광양 · 곡성 · 구례)이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두 의원은 '제3지대 통합 신당때 참여하겠다' 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허용되면서 이들의 정치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안정치연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역의원으로는 유성엽 · 박지원 · 천정배 · 장병완 · 최경환 · 장정숙 · 윤영일 · 김종회 등 8명이 참석했고,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의 발기인이 자리했다.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그동안 대안신당 임시대표직을 맡아 온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이날 채택된 특별 결의문에서 창준위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신당 창당"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발기인대회는 평화당 탈당 당시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했던 이용주 · 정인화 의원이 불참했다.

외부 세력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마저 이탈한 모습이다.

발기인 대회 전날 민주당 입당에 성공한 손금주 의원(나주 · 화순)과 함께 이용주 · 정인화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해 금배지를 단 동료들이다.

특히 손 의원 입당 당시 민주당 측은 "신규 입당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밝혀, 이용주 · 정인화 의원의 민주당행(行)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인별 사정은 다르다.

◇이용주 "외부 세력 함께하지 않는 한 신당 참여 안해"

이용주 의원은 최순실 청문회에서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17번이나 이어진 호통과 질문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 일약 '청문회 스타' 로 떠올랐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서울 등에 총 16채의 주택을 보유,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정작 본인이 지난해 10월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쇄도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여수갑과 이웃 선거구인 여수을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민거리다.

이런 연유로 현재 민주당 입당보다는 내년 총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차기 여수시장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대안정치연대만으로 내년 총선이후에 정치세력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면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여기에 외부 정치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당에 참여할 수 없고 제3의 당이 만들어질 때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여수시장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인화 "제3지대 통합 불발시 무소속 출마"

정인화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된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정치에 첫발을 디딘 그는 민주당과 크게 대립되는 정치 행보를 펼쳐오지 않았다.

더욱이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포진하고 있지 않은 점도 호재다.

지역구 3선 출신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최대 경쟁자이나, 민주당내에서도 새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태다.

정 의원은 "분열된 야권이 한 덩어리로 뭉치지 않고 파편내지 부분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김종회 의원도 발기인까지만 참여하기로 했고, 신당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주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선한 재야인사와 함께하는 당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대안신당으로만 간다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입당 인사하는 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전남 나주 화순에 지역구를 둔 손금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의원월급 깎는 법안에 민주 · 한국 · 바른미래 동참 '0명'

심상정 "의원 세비 30% 삭감 효과…국회예산 141억 절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비 ·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해주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300명 의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서명한 분들 10명만 맞춰서 발의했으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끝은 반드시 성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황교안, '좀비' 비판에도 "총선승리 못하면 저부터 물러날 것"

"확실하게, 과감하게 당 쇄신해 나갈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해다.

전날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고 미련두지 말고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를 에둘러 거절한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김성찬 ·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유민주진영의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며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겠다.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